함평 초·중·고 이전 움직임 본격화

매년 축제로 면학분위기 악화…통·폐합 요구

함평여고 이전…기산초·함평초는 통합 검토

함평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초·중·고의 통·폐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엑스포공원과 인접해 있는 함평여중·고의 경우 매년 나비축제로 인해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전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지난 10년간 나비축제가 열리면서 분위기에 민감한 학생들이 덩달아 축제 분위기에 휩쓸리고 행사 소음과 등·하교시 교통혼잡 등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엑스포 공원이 지난 9월부터 연중 상시 개방돼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함평여고가 올해 기숙형 공립학교로 선정돼 현재 부지에 예산이 지원되기 전에 이전이나 통·폐합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내 일각에서는 함평여중은 인근 중학교와 통합하고, 함평여고는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기산초등학교 역시 인근 함평초등학교와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모임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임용수(45·함평읍)씨는 "함평교육의 미래를 위해 다각적인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위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할 경우 학교당 10억원까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동일 학교는 물론 초·중, 또는 중·고간 통폐합도 권장하고 있다.

한편 함평여중·고는 1968년 설립된 공립학교로 현재 여중 130명, 여고 102명의 학생과 40여 명의 교직원들이 재직하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천년 묵은 명품 간장 구경 오세요"

24일 개막 나주 농업박람회서 전시

오는 24일 나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제7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특별기획전에서는 국내 최고의 명품간장 20가지에서 종균과 성분을 추출해 제조한 '천년묵힌' 간장인 '종자장'이 선보인다.

가장 주목을 끄는 명품 간장은 역사학자와 박물관 관계자들로부터 보물급으로 평가 받고 있는 광주의 창녕 조씨 사정공파 종가에서 출품한 63년 묵은 간장과 된장. 1946년 사정공파 종가를 신축하면서 담근 것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된장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국농어업예술위원회'가 제조해 선보이는 숙성기간 '1천777년'짜리 종자장은 음식업계의 초미의 관심 거리다.

이 종자장은 명품간장 20가지에서 성분과 종균 등을 추출하는 '덧장기법'을 통해 제조됐으며 명품간장들의 개별 숙성기간을 산술적으로 더할 경우 묵힌 햇수가 1천777년에 달한다.

농기원 김동관 박사는 "종자장은 최소 41년 전에 만들어진 간장으로 만들어져 발효가 거의 정지돼 있으나 새로운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다른 장보다도 훨씬 빠른 발효로 독특한 장맛을 유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희귀성으로 350년된 간장이 1ℓ에 5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으며 이번에 제조된 종자장은 200㎖에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5천500만원까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동기자 song@

"일 잘하는 공무원 전국 최고 대우"

영광군, 우수공무원 20명 선발 포상·승진 혜택주기로

영광군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수 공무원에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영광군은 전국 단위 기관 표창이나 대규모 투자유치, 지역 특산물 판로개척 등에 공로를 세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20명까지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100만원의 포상금과 근무평정 가점이 주어지고 수상자 모두에게 해외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또 6급 이하 승진 대상자의 20%는 우수 공무원을 우선 선발하며 ▲스터디 그룹별 해외 배낭여행 ▲군수 표창자에 대한 '부부 국내 산업시찰' 등도 실시된다.

영광군의 이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는 46명 규모의 정원 감축과 산업단지 건설, 농·수 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등에 따른 업무량 급증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다.

영광군 관계자는 "'행정 선진 도시'인 경기도 파주시를 벤치마킹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도입하자는 정기호 군수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안개 조심 안전 항해"

완도해경, 사고예방 당부

최근 일교차에 따른 해상 국지성 안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가 안전 운항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펴고 있다.

완도해경은 21일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 새벽시간에 짙은 안개가 발생,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항해를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파출소와 출장소에서는 수시로 어민들을 대상으로 선박의 충돌·좌초·전복·기관고장 예방요령 등 안전운항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선박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또 통행량이 많고 해양사고 다발 취약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해남 인삼 수확 한창 전남 최대 인삼 생산지인 해남에서 인삼 수확 작업이 한창이다. 해남군에서는 올해 6년근 인삼 150여t을 수확해 60억 여원의 농가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영암배 많이 드세요"

군, 배 사주기 운동…서울 등지서 판촉 활동

영암군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 농가를 위해 '영암배 사주기 운동'을 벌인다.

영암군은 23일 서울 영등포구청 광장을 비롯한 동대문 상가 등에서 대 도시 주민들을 상대로 영암배 판촉 활동을벌인다.

또 영암 신북농협에 배 판매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영암 향우회와 사회·기관단체 등에 협조 서한문 발송 및 군 산하 전 직원들의 배사기 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사진〉

군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2일간 과천정부청사에서 영암배를 비롯한 영암무화과 등 우수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통해 6천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광산구 주민 음악회 잇따라

어제 첨단골 가을음악회

광산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동네 음악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광산구 첨단 1동(동장 박종호)은 21일 오후 6시 쌍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제 5회 첨단골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풍물패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평소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장기자랑 등이 펼쳐졌다.

또 음악 줄넘기와 기타 연주, 요들송, 국악 공연과 부대행사로 풍선아트, 먹거리 장터가 운영됐다.

지난 18일에는 신창 역사문화공원에서 '제 1회 신가·신창 동네음악회'가 열렸다. 〈사진〉

신가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음악회는 자매 동인 송정 2동의 재즈댄스, 평동의 민요, 신가동의 가야금병창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연을 시작으로 통기타 연주, 관악 연주, 우리 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나주 영산강문화축제' 팡파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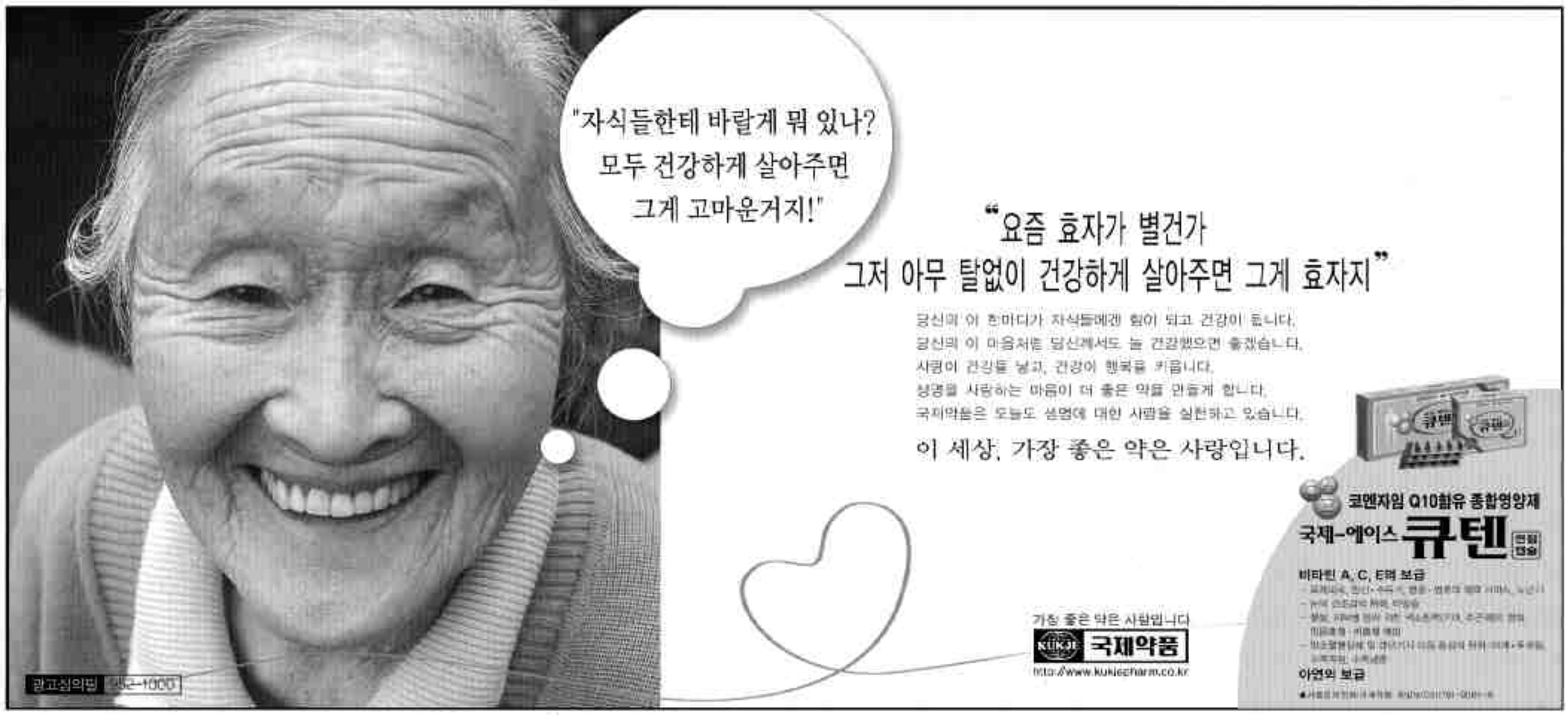
24일부터 3일간 나주 금성관 일원서

'2008 나주영산강문화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나주금성관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는 영산강문화축제는 예년에 비해 축제 기간을 이틀 단축해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영산강, 내 안에 흐르는 역사의 힘'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는 장화왕후 결혼식을 비롯해 나주목사 부임행차 재현, 허수아비 놀이 등 기획과 공연, 체험 등 5개 부문 50여 개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백호 임제 선생을 기리는 백일장 대회와 나주 들노래시연, 영산강 문화축제 축원 및 기원 무용, 천연 염색 패션쇼, 전통 혼례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김오재 나주시 문화관광과장은 "알차고 의미 있는 문화축제로 가족과 함께 즐길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